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 299호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홍보실
주소 110-793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대표전화 1577-7755



행복한 소통의 시작, 현대건설 이야기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합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한남대교 야경(위)과 N서울타워,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국회의사당 전경



Photo
News

현대건설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그 맥을 함께한다. 1958년 전후 복구사업인 한강 인도교 공사를 시작으로 고속도로·담·항만 등 사회간접시설과 주요 기간산업을 건설했으며, 매립공사로 지형을 바꾸고 대표 건축물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왔다. 한국 건설사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는 현대건설의 몫이었으며, 현대건설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지금도 서울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랜드마크들은 대부분 현대건설의 기술력으로 시공됐다. 또한 앞으로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현대건설의 몫일 것이다. 사진=송성훈, 김현진 <관련기사 5, 6, 7면>



힐스테이트, 대한민국 대표 명품 아파트 입증

2015 THE PROUD 대한민국 명품 6년 연속 1위

힐스테이트가 소비자가 뽑은 명품 브랜드에 6년 연속 선정되며 국가대표 아파트로서의 남다른 위상을 과시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최근 발표한 '2015 THE PROUD 대한민국 100대 상품'에서 힐스테이트는 '대한민국 명품 친환경주거/리빙 부문'에 6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THE PROUD'는 기업에는 상품 육성 로드맵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가치 있는 구매 준거를 제시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상품평가제도다. 힐스테이트는 ▶주목받는 신상품 ▶고객 가치 최우수상품 ▶대한민국 명품 등 3개 분야 가운데 탁월한 우월성과 대표성으로 세계적 수준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명품'에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2만37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와 온라인 소비자 패널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힐스테이트는 최근 공간의 웰빙화(Well-stay)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식처로서의 주거공간을 제공한 것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신뢰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명품성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레미안, 자이 등 경쟁 브랜드를 제치고 높은 지수를 획득해 눈길을 끌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통과 권위의 상품평가제도에서 다년간 1위를 차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힐스테이트의 모든 단지들을 환경을 생각한 탁월한 주거공간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품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5월 ▶범죄로부터 안전한 설계(안전) ▶자녀의 창의력을 높이는 디자인(교육) ▶에너지 저감을 위한 최첨단 홈네트워크시스템(편리) 등의 설계 및 디자인 역량을 강화한 '2015 힐스테이트 스타일'을 발표하고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분양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지난 5월 분양해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흥풍을 몰고 왔던 힐스테이트 태전 모델하우스.

Hillstate proves itself as a Korea's prestigious apartment

Hillstate assumes a distinguished position among apartment brands as it was selected as the PROUD 100 Products of Korea for six consecutive years.

Hillstate was selected six years in a row at the PROUD 2015 recently announced by the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Consulting (KMAC) in a category of premium and environmental friendly apartments. The PROUD, which marks the 9th anniversary this year, is a product evaluation system designed to provide a roadmap for promoting products for companies and to suggest standards for valuable purchase to customers. The Korea's most credible and recognized product evalu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7. Hillstate was named as the "Korea's Premium Product," the title given to products or services that pursue to be a world-class premium brand in terms of excellence and representativeness in three areas including noteworthy new products, customer-value centered products and Korea's premium labels. This year, a face-to-face survey and an online consumer panel survey were conducted of 23,700 people aged from 20s to 40s who live in Seoul and the capital area.

Hillstate was awarded in recognition of its reliability as a premium brand which raises quality of life and adds style, at a time when a growing number of consumers pursue "well-stay." Hillstate obtained higher scores in categories of premium, prestige and luxury, beating its competitors including Raemian and Xi.

NEWS

- 현대건설, 음식 폐기물로 차량연료 만든다
- LH 타워 신사옥 이전 개청식
-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확장공사 준공식

그룹사 소식

현대자동차, '메시지 투 스페이스' 2015 칸 국제광고제 3개 부문 수상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메시지 투 스페이스'가 세계 최고 권위의 광고 축제인 칸 국제광고제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남부 칸에서 열린 광고제에서 '메시지 투 스페이스' 캠페인은 영상기법·직접 광고·옥외 광고 등 총 3개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이 캠페인은 우주비행사인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제네시스를 활용해 초대형 메시지를 만들어 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첫선을 보인 후 6월 말 현재까지 6500만 건이 넘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기록해 현대차 홍보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스틸산업, 호주 LNG Facility 배관 모듈 1항차 출하 완료

현대스틸산업 울촌공장이 Ichthys On-shore LNG Facility Project Piperack Module 1 항차를 최근 성공리에 선적, 출하했다. 현대스틸산업이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CH2M UGL JV로부터 수주한 이 모듈은 호주 북부에 위치한 LNG 시설에 설치되는 것으로, 총 24개 모듈 중 12개가 1차 선적됐다. 세계적인 모듈·파이프스플 제작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현대스틸산업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제작부터 출하 전 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며, 오는 15일 2항차 12기를 출하할 예정이다.



현장·부서 소식

문정2구역 엠스테이트 정연모 현장소장,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문정2구역 엠스테이트 현장의 정연모 현장소장이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매년 수여하는 것으로, 정소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문정지구 2블록에 위치한 문정2구역 엠스테이트 현장은 지하 5층~지상 17층 4개 동 규모로, 준공은 내년 10월 예정이다.



연구개발본부, 그린스마트 빌딩 관련 특별 세미나 열어

연구개발본부가 지난달 25일 'Advanced Building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가졌다. 강원도 평창군 인근의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우리 회사 및 그룹사 임직원을 비롯해 학회, 연구기관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한설비공학회와 연계해 그린스마트 빌딩에 대한 최신 기술 동향과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현대건설, 음식 폐기물로 차량연료 만든다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연간 1조7000억원 경제효과 기대

우리 회사가 환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6일 하수 찌꺼기와 음식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차량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환경신기술(472호) 인증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은 하수·음식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에서 불순물(황화수소·실록산 등)을 제거해 천연가스 차량연료로 사용 가능한 바이오메탄을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이번 기술은 버려지던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 순환형 친환경 기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생산된 바이오에너지는 차량

연료와 도시가스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해 연간 약 1조7000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 2013년 강원도 원주시에 바이오가스 정제시설과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연료 주입시설을 건립해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환경부가 주관하는 '충주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실증연구' 사업 역시 내년 상반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총 4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우리 회사가 원주 하수처리장에 건설한 바이오가스 정제시설과 차량연료 주입시설.

Hyundai E&C develops eco-friendly technology to produce bioenergy

Our company is leading th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in a bid to cut back on environmental and greenhouse gases.

Our company received the Environmental New Technology

Certificate (No. 472) on July 6 with its newly developed technology designed to clean up biogases generated from sewage sludge and food wastes to use them as a fuel for vehicles. The new technology developed jointly with

Korea Gas Corporation is an eco-friendly energy system to remove biogas impurities such as hydrogen sulfide and siloxane from biogases produced in sewage and food wastes treatment plants and further generate

biomethane which can be used as a transport fuel. It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s, possibly leading to economic benefits of about 1.7 trillion won on an annual basis.

LH 타워 신사옥 이전 개청식

우리 회사가 시공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타워'가 지난달 30일 개청식을 가졌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LH 타워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LH 타워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본관과 3개의 별관으로 이뤄졌으며,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다.

특히 LH 타워는 고성능·고기밀



지난 6월 30일 열린 LH 타워 개청식.

단열 시공은 물론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대거 적용돼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보다 50% 이상의 절감 효과를 자랑한다. 한편 우리 회사는 이 건물

에 BIM을 기반으로 첨단 건설관리 기법인 '사전 설계·시공 최적화 기법(Pre-construction Process)'을 적용했다.

상반기 환경주거문화대상 아파트 부문 대상 수상

우리 회사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가 지난 2일 서울 중립동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2015 상반기 환경주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아파트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환경주거문화대상은 주거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는 우수한 교통환경·친환경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확장공사 준공식

우리 회사가 지난달 30일 코트디부아르 아지토(AZITO) 발전소 확장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 가나 전 대통령, 전력청 장관을 비롯해 우리 회사 전력사업본부 최재찬 본부장이 참석해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진행됐다.

2012년 1월에 수주한 이 공사는 코트디부아르 행정·경제 중심지인 아비장(Abidjan)에 위치한 기존 가스터빈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확장공사 현장 전경.

발전소(144MW 2기) 현장에 139MW 스팀 터빈 1기를 추가해 430MW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공사비 약 2억5000

만 달러. 우리 회사는 아지토 발전소 준공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PHOTO NEWS



근무시간 준수 캠페인 시행

우리 회사가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 준수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업무 시작 시간인 8시 이후 자리 이석 지양과 12시부터 13시 사이의 점심시간 준수 등 사내 기본 수칙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각 사무실에 비치된 TV 화면에 구내식당 대기인원 및 예상 대기시간을 안내해 임직원의 효율적 점심시간 활용을 돕고 있다.

협력사 안전평가제도 신설

우리 회사가 최근 '협력사 안전평가제도'를 신설하고 안전문화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력사 안전평가제도'는 협력사에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회사는 약 60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등급 평가를 시행해 점수에 따라 S부터 D등급까지 총 5개 안전평가 등급으로 나눌 예정이다. 분기마다 실시되는 현장평가는 안전관리·안전점검·안전의식·안전교육·환경관리가, 연 1회의 본사평가는 재해율·HPMS 사용현황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안전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지난 4월 '경영층 총괄 안전회의'를 신설해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ISSUE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의 최신 뉴스를 (사보신문)에 연재합니다. 경제·건설·문화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뉴스를 통해 생생한 비즈니스 이슈 및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자체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TV chef offers tips for home cooking made easy

June 29

Following a recipe seems simple enough, but many professional chefs contend that it's not how closely a cook follows directions that makes the dish - it's the quality of ingredients.

So to get some expert advice, Korea JoongAng Daily, recently shadowed Chef Lee Won-il, who currently appears on the JTBC cooking program "Please Take Care of My Refrigerator."

In the show, Lee works with Korean celebrities, using whatever is in their refrigerators at the time to demonstrate what viewers can put together with ingredients typically found at home. The popular TV chef also gave tips on where and how to find quality staples.

First, before going to the market, decide how much to buy and how long the foods can typically last. That way, no food is unnecessarily wasted. Writing a grocery list is also important. The average person would do well to plan in advance the dishes he or she wishes to make and write down all necessary items. That way, cooks won't forget any crucial ingredients.

Upon arriving at the market, consider what to pick up first,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ime and the weather. Fight the urge to look for discounted items at the beginning, which can be distracting.

Buy packaged goods or sauces first, and then move on to produce - fresh vegetables and fruits.

Save buying meat and fish until the end, as frozen goods must be shelved as soon as possible after coming back home.

When Lee passed the frozen foods section, he stopped to check the condition of the bean sprouts. Picking up a package, he held it high to see the bottom of the plastic bag. "I'm checking if I can see any moisture," he said. If certain packages are on the shelf for too long, he added, moisture tends to seep down to the bottom - and those aren't the items home cooks will want.

The same rule applies when selecting other refrigerated foods, including mushrooms and hot peppers. For eggs, check to see if the package has a certificate verifying that no antibiotics were used in raising the chickens, and with olive oil, make sure it's extra virgin.



Another tip to remember is that the lighting inside many supermarkets can make not so fresh items look more appealing, especially when it comes to meat.

It's better to buy meats that are light pink in color, though the orange lighting near most meat sections can be deceptive and mask a product's true hue. In that case, take a package from the shelf and check its color under normal light before putting it into the cart. Similarly, poke

packaged meat with a finger to see if the product quickly returns to its original shape. If not, that means too much time has passed since the meat was processed, hence it's less fresh.

"Before I went into the elementary school, I followed my grandmother to the market to buy food," he said. "That was when I realized the joy in making food for the people I love with good ingredients, so I think part of being a good homemaker comes from picking up groceries in person."

스타 셰프가 전하는 집에서 요리 쉽게 하는 법

레시피 따라하기는 얼핏 간단해 보일지 모르다. 하지만 셰프들은 요리는 단순히 얼마나 레시피대로 똑같이 따라 하느냐가 아니라 재료의 품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기 위해 (중앙일보)가 JTBC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 중인 이원일 셰프를 따라가 봤다.

이 셰프는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냉장고 속 식재료를 이용해 시청자들이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인기 셰프인 그는 질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에 대한 비법도 전해 주었다.

우선 장을 보기 전 재료를 얼마만큼 살지, 또 며칠 동안 먹을 재료를 살 것인지를 정해야 불필요한 재료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장보기 목록을 적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만들고 싶은 요리를 미리 계획하고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적어야 중요한 재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 도착하면 시간과 날씨를 고려해 먼저 고를 품목을 정한다. 시작부터 할인 품목에 현혹해서는 안 된다.

포장제품이나 양념을 먼저 사고 난 뒤 채소와 과일 코너로 이동한다.

냉동제품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보관해야 하므로 육류와 생선은 가장 마지막에 산다. 냉동식품 코너를 지나면 이 셰프가 콩나물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멈

췌다. 포장된 콩나물 하나를 집어서 플라스틱 포장지의 바닥을 살폈다. 이 셰프는 포장지 안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진열된 경우 물기가 포장지 아래쪽으로 모이는데 이런 제품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버섯, 고추와 같은 다른 냉장제품을 고를 때도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달걀의 경우 무항생제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인지 확인해 본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육류의 경우 마트에서 사용하는 조명 때문에 신선도가 다소 낮은 제품도 신선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선홍빛을 띠는 육류를 사는 것이 좋는데 대부분의 육류 코너에서 사용하는 주황색 조명은 사람들의 눈을 속여 제품의 진짜 색깔을 감춘다. 이런 경우 포장제품을 선반에서 꺼내 카드에 담기 전에 일반 조명 아래에서 색깔을 확인해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고기를 눌렀을 때 고기가 원래 형태로 즉시 돌아오는지도 확인한다. 그렇지 않은 고기는 가공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뜻이므로 신선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 Key expressions

staple: 주요 산물, 기본 식품품, 재료
seep down: (특히 물기 등이) 스며다
poke: (손가락 등으로) 쿡 찌르다

Koreans tie the knot but won't sign the papers

June 29

In a recent survey conducted by the JoongAng Ilbo and Duo, the country's top matchmaking agency, more than three out of 10 unmarried individuals - 302 out of a pool of 865 respondents - said they would take time before making their marriage legally binding. As to when they intend to do the paperwork, 251 people answered a year after cohabitation, the most popular answer at 29 percent. That was followed by 44 people, 5.1 percent, who said they would register

after having their first child.

When asked about their reasoning, over half (51.3 percent) replied they were "uncertain" about



their potential spouse, whereas 15.2 percent cited "freedom."

The results show that common-law marriage, which was rare in the past, has become more widespread among the young generation in Korea, said Kim Hyun-jin, a lawyer at the law firm Shin and Kim.

Of the 141 lawsuits filed with the country's legal authority since 2010 involving disputes in common-law marriages, 40.4 percent was related to couples that were married for less than a year. Almost half of the people in those cases, 46.1 percent,

said they had not legalized their marriages due to a "lack of trust" in their significant others.

A separate set of data indicates that separated couples whose marriages were not legally binding stayed together for an average 5.29 years. People who divorce after legally marrying stay together on average 14.3 years.

Korea recognizes common-law marriage in three main conditions: when the couple has lived togeth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en they have publicized their marriage, and when they held a wedding.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Q Describe the picture.

SAMPLE ANSWER

This is suitable picture in summer. In the picture, I can see the sea with light blue color. It is very clean so I can see all the things in the water. I can see two fishes at front side. They have yellow tail and black eye hole. Black stripes are on their white body. Also I can see white sand under the water. They twinkles in the sea. The sea is not deep so I can recognize the color of sand. That's all I can see in this picture.

Picture Comparison 유형



Q Compare the two pictures.

SAMPLE ANSWER

I am glad to compare these two pictures. Both are sweets we can find in summer easily. Left one is ice candy. Ice candy is sweet and cold so I can enjoy it in summer. There are four ice candies in the picture. There are red, green, purple and orange one. I think they are made of fruit or juice because of the colors. Right one is ice cream. Ice cream is also sweet and cold. And it tastes more creamy than ice candy. Ice cream taste milky and sweet. In the picture, the ice cream is brown so I can guess it is made of chocolate and milk. I prefer ice candy more than ice cream. Because I like juicy taste more than creamy taste.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Exhibition

It might look like trash, but it's art

July 08: Visitors to the Artsonje Center in central Seoul who are not familiar with conceptual art might be shocked by the scene on the second floor.

All kinds of construction waste - roof slates, bricks, floor panels and wood - as well as used everyday objects like shoes, chairs, bicycles and blankets are artfully arranged and on display.

This exhibition by Mexican conceptual artist Abraham Cruzvillegas, titled "Autodestruccion8: Sinbyeong" runs until July 26. It is the first solo show in Korea by Cruzvillegas, who will present a new project at Tate Modern's Turbine Hall in London in October. For this exhibition in Seoul, Cruzvillegas collected various objects left behind in some Seoul areas after the residents moved away due to redevelopment projects.



REPORT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단일호기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기전공사를 2012년 11월 착공했다. 현장은 올해 말 9호기와 내년 6월 10호기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현장 최고 (84)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기전공사 현장

국내 화력발전소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다



1 약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기전공사 현장 전경. 2 보일러 미탄기 설치 모습. 3 자재 리프팅 모습.

국내 최초로 단일호기 1000MW급 발전소를 짓다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우리 현장은 기존 8호기까지 건설된 당진화력발전소에 3300t급 보일러 2기와 1000MW급 스팀터빈 2기를 추가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특히 우리 현장은 석탄화력발전소 단일호기로는 국내 최초로 1000MW급 발전소를 시공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현장 옆에는 500MW급 당진화력발전소 1~8호기가 상업 운전 중이다. 토목·건축 공사와 기계·전기 공사로 나뉘어 발주된 이 공사는 토목·건축 공사가 2011년

에 착공해 진행되고 있고(현대건설 비주관 시공 참여 중), 우리 현장은 2012년부터 기계·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현장의 총 공사비는 2230억원 규모로 6월 말 현재 92%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며 그 위용을 갖추어가고 있다. 우리 현장은 화력발전소 최초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됐고, 총 건설비의 20%를 환경설비에 투자해 대기오염 배출과 소음 발생을 최소화했다. 처음 시도되는 대용량 화력발전소 설치공사다 보니 현장 직원들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협소한 현장 부지에서 여러 공

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자재를 아적할 공간이 부족했고, 공동 도급사의 부도 위기로 인한 현장 분위기 침체 등 산적한 문제도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전 직원과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주)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매우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인 보일러 설치공사 중에도 자재 공급 지연과 오제작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두가 합심해 돌관공사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9호기 보일러의 최초 점화(Initial Firing)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현재는 주 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해 조만간 9호기 보일러의 석탄 최초 점화(Coal Firing)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전력 수급 안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은 초초임계압(USC) 방식의 고효율 발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초초임계압 방식은 세계적으로 일본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만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기존에 운영 중인 1~8호기보다 열효율이 높다. 이 방식의 적용으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인 이산화탄소 배출도 기존 1~8호기가 1MWh당 약 0.80t인 데 비해 0.77t으로 개선되고 주 증기압 역시 기존 1cm²당 246kg에서 251kg으로 향상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신규로 건설될 원전 4기를 포함, 전력 예비율이 22.6%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원전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 17.2%로 떨어지게 된다. 이에 원자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단가가 낮고 고효율 발전 방식이 개발된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현장은 대한민국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재해와 공기 준수다. 올해 말 9호기를 먼저 준공하고, 내년 6월 10호기를 최종 준공하기 위해 전 직원은 밤낮없이 공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글=최한주 대리



성공적인 준공을 다짐하는 현장 직원들.

향후 전력 수요를 예비하다

우리 현장은 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해 철골 공사가 먼저 시공되면서 공정 간섭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크레인과 트랜스포터 장비를 이용한 다수의 공법 변경으로 짧은 공기와 위험한 작업 등 악조건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당초의 공정 스케줄을 지킬 수 있었다. 지난해 7월에는 보일러의 용접부 건전성 확인을 위해 실시한 보일러 수압시험에서 성공적으로 법정검사를 통과했다.



MINI Interview 변인환 현장소장

“화력발전소 현장의 본보기가 될 것”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현장은 국내 최초로 1000MW급 발전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현장은 공사 특성상 공정 간의 간섭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위해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공사계약서와 시방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도록 해 시행령을 개선하고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직원들은 1000MW급 발전소 시

공 경험이 없었지만 적극적인 자세와 단합된 조직 역량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공기 지연 없이 당초 일정대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타 발전소 현장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시운전 중인 9호기 준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전 직원이 단합해 안전·공정·품질·원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성공적인 준공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 발전소를 지향하다



육내형 저탄장 설비시설 전경.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현장은 친환경 발전소로 건설되고 있다. 총사업비의 20%(5706억원)를 환경설비에 투자해 저탄장을 육내형으로 건설했다. 이 시설은 법적 규제치보다 훨씬 엄격한 설계기준을 적용해 저탄 용량이 60만에 달한다. 육내형 저탄장 설비시설 구축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제로화했으며, 최첨단 탈황·탈질 시스템으로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주체어 건물도 발전소 외부에 별도로 건설해 저소음·무진동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우리 현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전소 건물과 자재창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발전소 취수소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MARKET

최근 중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건설 수주가 위축되면서 국내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의 단기 및 중장기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글=이홍일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칼럼 ⑭ 대한민국

국내 건설수주 2년 연속 회복세 다시 주목 받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울산대교



2020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 선진국형으로 본격 전환 예상... 건설투자 비중 정체 혹은 쇠퇴할 것

단기 회복세로 끝날 가능성?

최근 국내 건설 수주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다. 2015년 1~4월 동안 국내 건설 수주는 대한건설협회 자료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민간주택 수주의 힘이 컸다. 1~4월 민간주택 수주는 역대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중반 호황기 시절의 수주액을 5조원가량 넘어섰다. 당분간 수도권 중심의 민간주택 수주의 호조세는 좀 더 지속될 전망이다. 추세로만 본다면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120조원을 넘어설 기세다. 결국 국내 건설시장은 올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건설 수주의 회복세가 대부분 민간주택 수주의 회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회복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주택시장은 신규 주택 공급 과잉이라는 부정

적 요인에 점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수도권 주택시장도 내년 하반기 이후를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급 요인을 비롯한 기초 경제 요건(Fundamental)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내년 하반기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케 하지만 향후 거시경제 불확실성, 금리 인상, 가계 부채,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 등 부정적 요인이 만만찮다. 주택시장뿐 아니라 공공 건설시장도 내년에는 일부분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논의가 시작됐고, 문제는 감축 여부가 아니라 감축의 폭인 듯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국내 건설 수주의 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상당 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국내 건설 수주의 회복기간이 적어도 3, 4년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복 국면은 상

대적으로 단기간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주택 시장 활성화 방침 유지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3년 이상 회복세는 불가능하다는 보수적 시각 아래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선진국형 시장 전환 본격화

이제 시각을 좀 더 넓혀 중장기 국내 건설 시장을 보자. 건설기업들의 국내 매출액을 합계한 것과 비슷한 개념인 국내 건설투자를 기준으로 국내 건설시장은 2030년까지 성숙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사이클에 의해 단기 시장 규모는 계속 변화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대목이 있다. 신축 건설시장은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되지만, 대신 유지보수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건설시장의 규모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내 건설시장은 2020년 이후 선진국형 시장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되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대체적으로 11% 수준에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1%에 이르는 2020년 이후에는 보다 빠르게 선진국형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다. 2020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의 중장기 특성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신축 위주에서 유지보수 위주로 시장 전환, 신축 시장의 축소와 질적 변화, 운영 시장의 본격 등장이다.

국내 건설시장 중장기 특성 변화 세 가지

첫째, 2020년 이후 유지보수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물이 1990년대에 건설됐는데, 2020년 이후에는 사용 햇수 30년을 초과해 유지보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2024년 준공 후 30년 경과 1.2중 사회기반시설물 수는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동 시설물의 비중 역시 21.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역시 2020년 이후 노후 주택이 증가해 유지보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주택 비중은 2020년대 중반 30%를 초과할 것이다. 결국 신축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건설기업은 이후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축시장의 축소 및 질적 변화가 일

어날 것이다. 공공시장의 경우 예산 제약이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축 공사 발주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자원을 공공시설의 신축과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시도할 것이다.

주택시장 역시 향후 신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 40만 호 수준인 신규 주택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7000~8000호씩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2030년 중반 이후에는 주택 수요의 감소 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2030년 중반 이후부터 주택보유율이 하락하는 70대 중반 이후의 연령대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신규 주택 수요의 축소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신규 주택공급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과거 대량 주택공급 시대에는 개별 고객의 니즈가 무시되고 획일화된 대량 공급을 통해 저비용으로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에서 충족되지 않는 잠재 니즈를 건설기업이 파악해 이를 충족시켜 주는 고객 맞춤형 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건설기업은 고객을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객집단별 니즈 분석을 통해 맞춤형 소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사업 운영 프로세스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 마케팅, 디자인 등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대형기업보다는 주택전문 중견기업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환경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주택 수요의 다양화 및 질적 변화와 관련해 현재 예상 가능한 주택 유형은 스마트 홈 및 웰스케어주택, 고급 실버하우스 및 의료 주택, 고급 레지던스, 서비스드 하우스, 공간 구조 가변형 주택, 공간 공유형 주택, 콤팩트 주택 등이 있다. 또한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와 관련해 중요한 요인은 베이비부머의 주택 다운사이징(Downsizing) 수요다.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등의 통계를 기초로 분석해 볼 때, 2020년 전후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택 다운사이징 수요가 국내 주택시장에 큰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운영시장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택 부문은 향후 주택임대사업 자체가 성장성과 수익성을 점차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 TSP(Total Solution Provider) 관점에서 주택임대사업은 주택 시공사업, 개발사업 등과도 상호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임대사업에 대한 진출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SOC 시설의 운영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자본 투자 증가, 지자체 시설의 민간위탁관리 및 민영화 등의 흐름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건설기업의 SOC 시설 운영 시장 진출은 해외 신중국 시장 진출과 연계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그룹 내 운영 역량을 보유한 계열사들과 연계해 성공적인 신중국 진출을 이루는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외부 필진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건설투자 비중 정체 혹은 쇠퇴할 것

현재 약 14% 수준인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이 2020년에 11%에 근접하고, 2025년 10~10.5%, 2030년 9.2~9.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실질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3~2020년 0.8~1.5%, 2020~2030년 동안은 이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0.6~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 건설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신축 시장이 축소돼 쇠퇴기로 진입하는 반면, 유지보수 시장은 성장기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투자 중장기 전망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11~11.5%	10~10.5%	9.2~9.7%
건설투자 금액	162.0조~169.4조원	168.5조~177.0조원	172.7조~182.1조원
건설투자 연평균 증가율	0.8~1.5%(2013~2020년)	0.6~0.7%(2020~2030년)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 2005년 불변금액 기준

FOCUS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나가다

현대건설이 서울에 지은 역작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면서 세계 주요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글로벌도시지수(GCI) 11위, 글로벌패워리티지수(GPCI) 6위에 빛나는 메가시티이다. 우리 회사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랜드마크 N서울타워를 비롯해 청와대 영빈관, 국회의사당, 대법원 청사, 지하철 1·2·3·4·5호선 등 굵직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서울의 표정을 만들고 활기를 불어넣어 왔다.

1 국회의사당 1969~75년

24개의 백색 화강암 열주(列柱)와 초대형 돔이 특징인 건물. 한국 건축사상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석공사(石工事)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자문도 받아가며 공사를 진행했다. 높이가 육탑 3층 바닥에서 18m나 되는 돔을 건설하는 작업 역시 만만치 않았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 경계천 복원 2003~05년

평화문에서 동대문 방향을 흐르는 창계천이 2005년, 3년 여의 공사 끝에 생태하천으로 변신했다. 시민의 쉼터로 자리매김한 이곳에서는 매년 11월 서울빛초롱축제가 열린다. 우리 회사는 창계천 8가에서 신당철교까지 1.74km에 이르는 창계천 복원공사 3공구를 맡아 토목·조경 공사, 창계천문화관 신축 공사 등을 진행했다.

3 아셈타워·아셈컨벤션센터 1997~2001년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를 앞두고 건립됐다. 우리 회사는 1997년 다른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셈컨벤션센터 건립 및 한국중합무연탄화확충사업의 지하굴조 및 본공사를 수행했다. 41층 아셈타워와 4층 컨벤션센터, 전시관 개축공사 등 주공사를 담당했다. 2001년 서울시 건축상 수상 수상.



4 청와대 영빈관 1977~78년

외국 국빈을 위한 공식 행사를 개최하는 청와대 영빈관. 우리 회사는 서유럽, 일본 등 외국의 영빈관 답사작업을 거쳐 설계작업을 수행하고, 장중한 외관과 우아한 실내를 갖춘 지하 1층~지하 4층의 한식 기와 건물로 완성시켰다. 외부에 21개의 대형 화강석 열주를 세우는 난공사까지 마치고 1978년 12월 말 준공시켰다.



5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2011~15년

지난 5월 문을 열었지만 핫한 이태원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연면적 2964㎡, 지하 5층~지상 4층 규모로 음악을 주제로 한 도서관과 350석을 갖춘 공연장 '인더스테이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공간이다. 착공 44개월 만에 완공한 이곳은 1층 공간을 과감히 비운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6 N서울타워 1965~75년

대표적인 서울의 랜드마크. 우리 회사는 1965년 N서울타워 공사에 착수해 국내 각 방송전파를 송신하는 종합송신탑을 건설했다. 타워는 236.7m로, 75년 완공 당시 아시아 최고 높이를 자랑했다. 우리 회사는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사일로 공법을 적용해 초속 56m에서도 안전한 탑신을 완성했다.

7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2013~14년

2014년 오픈한 현대자동차 최초의 브랜드 체험관.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도산공원 사거리 근처에 위치해 있다. 유리 벽에 붙여 놓은 자동차들이 건물 전면에 보이는데,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자동차를 주제로 예술작품 전시, 라이브러리 등을 운영 중. 지난달 기준 누적 방문객 15만 명을 돌파했다.

8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축 회관 2010~13년

2013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을 신축했다.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를 설계한 'Adrian Smith & Gordon Gill'과 스페인 CRICURSA, Grupo Folca 등 선진 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해 지상 50층, 245.7m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한 것. 여의도에서 IFC와 63빌딩이 이어 세 번째 높이를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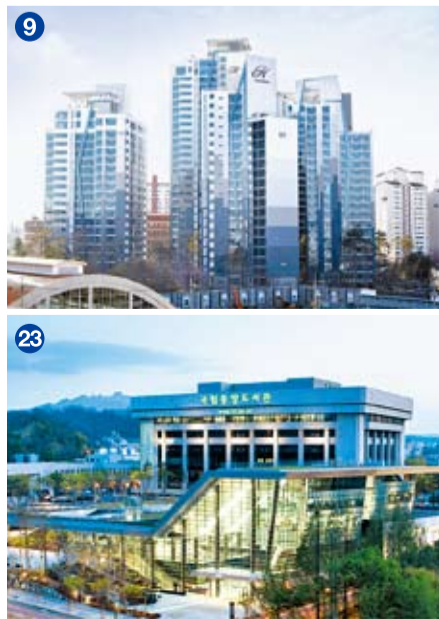


9 서울숲 힐스테이트 2006~09년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명품 친환경 주거 부문 6년 연속 1위로 선정된 힐스테이트는 2006년 론칭됐다. 최초의 힐스테이트 단지는 '서울숲 힐스테이트'. 2006년 11월 청약 접수 결과 최고 경쟁률 193.1:1을 기록하며 전 평형 1순위 마감됐다. 그동안 서울에 세워진 힐스테이트는 20여 곳에 달한다.

10 서울숲 2004~05년

2005년 6월 서울시민들에게 개방된 서울숲은 성동구 옥성 일대 115만6492㎡ 규모로 조성됐다. 시민들이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공원 ▶생태숲 ▶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 등 총 5개의 테마공원으로 나뉘어 있다. 우리 회사는 본공사를 맡아 2년 5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11 대법원 청사 1991~95년

국회의사당을 건설한 데 이어 1995년에는 사법부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 청사를 준공했다. 대법원 청사는 건물 배치·형태에서 대칭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또한 청사 중심부는 고층으로 지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표현했다. 서울특별시 건축상 은상,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준공 건축물 부문 대상을 받았다.

12 잠실야구장 1980~82년

국회의사당을 건설한 데 이어 1995년에는 사법부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 청사를 준공했다. 대법원 청사는 건물 배치·형태에서 대칭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또한 청사 중심부는 고층으로 지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표현했다. 서울특별시 건축상 은상,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준공 건축물 부문 대상을 받았다.

그 밖의 프로젝트들

- 16 외환은행 본점 1976~80년
- 17 프레스센터 1982~84년
- 18 서울대 중앙도서관 1972~75년
- 19 남산 1호 터널 1969년~70년
- 20 남산 3호 터널 1976~78년
- 21 지하철 1호선 7공구(종로 3가~5가) 1971~74년
- 22 지하철 2호선 잠실 구간, 신촌 구간 1980~82년
- 23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005~09년
- 24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증축 2002~13년



우리 회사가 지은 한강 교량

우리 회사는 대표 한강 교량을 대부분 완성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31개 한강 교량 중 한강대교 1979~82년(마정), 양화대교 1962~64년, 한남대교 1966~69년, 마포대교 1968~70년, 성산대교 1971~80년, 가양대교 1994~2002년, 잠실대교, 서강대교, 구리암사대교 등 9개를 건설했다. 또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성수대교 복구 공사를 수행했다.

- 13 구리암사대교 2006~15년 10월 준공 예정
- 14 잠실대교 1970~72년
- 15 서강대교 1992~99년



HARMONY

취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요즘, 청년들의 '취업의 꿈'을 이뤄주는 현대건설기술교육원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다. (사보신문)에서는 구직자의 미래를 함께 키워나가는 기술교육팀을 만나봤다. 글=박현희 / 사진=송성훈

우리 팀이 최고 ⑬ 기술교육팀

'취업의 꿈' 이뤄주는 최고의 드림팀 현장밀착형 글로벌 인재를 키우다



(왼쪽부터) 강나경 대리, 손정운 과장, 김은향 과장, 이정표 부장대우, 박미라 차장, 강진숙 사원, 박찬수 전문위원, 이현수 과장, 김시형 과장, 유춘식 사원, 박기경 대리, 고재역 팀장, 이재혁 과장, 박재세 부장대우, 이연한 전문위원, 박소연 대리, 김직수 차장, 김형원 과장, 김세광 전문위원, 서연배 과장, 정윤경 차장, 안치선 사원, 최형서 사원, 안경문 전문위원.

삼박자 고루 갖춘 기술교육팀

1977년 개원한 현대건설기술교육원은 구직자들이 무료로 건설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계 유일의 건설기술 특화 교육원이다. '현장 밀착형 글로벌 건설기술 인재 양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업률 70% 이상을 자랑한다. 지금까지 총 3만5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현대건설기술교육원에는 9개의 기업 대학 과정, 165개 교과가 있다. 교육생은 현재 400여명이다.

"기술교육원에는 학과마다 담임 교수님이 있어요. 강의부터 상담, 인성교육, 취업 연계까지 담당하는데, '슈퍼맨'이 따로 없죠. 훌륭한 교수진과 좋은 커리큘럼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현대건설기술교육원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웃음)." **고재역 팀장**

"전국에 건설 관련 교육원이 많지만 우리만큼 입학 경쟁률이 높은 곳도 없어요. 올 초 입학한 교육생들을 살펴보면 89.6%가 대졸자, 8.8%가 초대졸자예요. 그중 80%가 기계과, 토목과, 건축과 등 전공자이고요. 인재들이 모인 만큼 커리큘럼도 좋은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과정을 짜기 때문에 교육생과 취업 연계 회사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편이에요." **박재세 부장대우**

교육생의 성공? 팀의 보람

현대건설기술교육원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인재개발원에서 원명을 변경하고, 올 초 우리 회사 경영지원본부로 편입됐다. 교육원을 이끄는 기술교육팀은 고재역 팀장과 17명의 교수진, 7명의 기획·총무·사무지원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교수진은 10~30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지닌 베테랑으로, 직업능력훈련교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박재세 부장대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인 10인의 스타 강사 중 한 명으로 뽑혔을 만큼 실력파예요. 우리 팀의 최고 자량은 경험과 실력을 모두 갖춘 교수님

들이죠." **고재역 팀장**

기술교육팀의 주 업무는 현대건설기술교육원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강의를 하는 일. 그런 만큼 팀원들은 교육생에게 뒤지지 않는 열정으로 역량 개발에 힘을 쏟는다.

"학생들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공부하고 있어요. 배관기능장 등 다섯 종목에 걸쳐 9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2년에 한 종목 이상 국가기술자격증을 추가로 따려고 노력하고 있죠." **박소연 대리**

"저는 건설영어 강의에 (사보신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1~3면에 나오는 영어 뉴스를 발췌해 독해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사보는 저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교재가 됩니다. 또 그룹웨어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는데,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부하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어를 가르치려고 해요." **박소연 대리**

"저는 강의와 교육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현장밀착형 교육을 위해 교수진들의 현장 견학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올해에는 신한올 원자력 1·2호기 현장, 당진 화력 9·10호기 기전 공사 현장, 삼척 그린 파워 현장 등 플랜트와 전력 현장에 방문할 예정인데,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역량 개발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정표 부장대우**

기술교육팀은 교육생들에게 단순히 건설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일할 때의 태도와 인성까지도 교육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졸업 후 찾아오는 학생이 많을 정도로 교수진과 교육생 간의

유대감이 끈끈하다.

"다른 교수님들도 공감하실 텐데,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학생들이 현장에 잘 적응해서 일할 때일 거예요. 얼마 전 방문한 현장에는 우리 교육생이 공무 차장, 공무 대리로 있더군요. 올 초 졸업한 교육생도 신입으로 들어갔고요. 한 사무실에서 세 명이 함께 앉아 있는데 어찌나 흐뭇했는지 몰라요(웃음)." **박찬수 전문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웠지만 취업한 후 결혼해 아이 낳고 잘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면 큰 보람을 느껴요. 취업이나 결혼 등 좋은 일이 있어 떡을 돌리는 졸업생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직업을 선택해서 행운이라고 생각하죠(웃음)." **박재세 부장대우**

건설업계 취업의 '미다스 손'

기술교육팀은 현재 조직 활성화를 위한 경영 전략인 GWP(Great Work Place)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중이다. 고재역 팀장은 "신뢰·자부심·즐거움을 키워드로 팀 내 다양한 소통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영지원본부에 편입되면서 업무 추진 방식과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팀원들이 낮설어하지 않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죠. 저는 팀원 간에 신뢰가 있고, 각자의 업무에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직장생활이 즐거워진다고 믿

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테마 회식, 생일 축하 파티, 워크숍, 칭찬 릴레이, 학습 세미나 등 다양한 소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팀장으로서의 매주 월요일 팀 주요 상황과 업무 일정 등을 팀원들에게 메일로 공유하고요, 대면 보고를 최소화하는 데도 신경쓰고 있어요." **고재역 팀장**

"팀 특성상 함께하는 업무가 많지만, 협업해야 할 때는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해 내는 게 우리 팀인 것 같아요(웃음)." **김시형 과장**

개원 39년차, 편입 9개월차인 기술교육팀의 포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당차다.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강한 팀워크로 건설업계 최고의 취업 대응팀이 되겠다는 것이다.

"팀원들에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자!'라고 자주 말해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다 보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팀이 경영지원본부에 합류한 지 9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 이상으로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예요. 기술교육

팀의 목표는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우리 교육원을 찾게끔 하는 것이예요. 각 사업본부, 인사실과 협업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임직원 여러분도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웃음)!" **고재역 팀장**

경영지원본부에 편입되면서 업무 추진 방식과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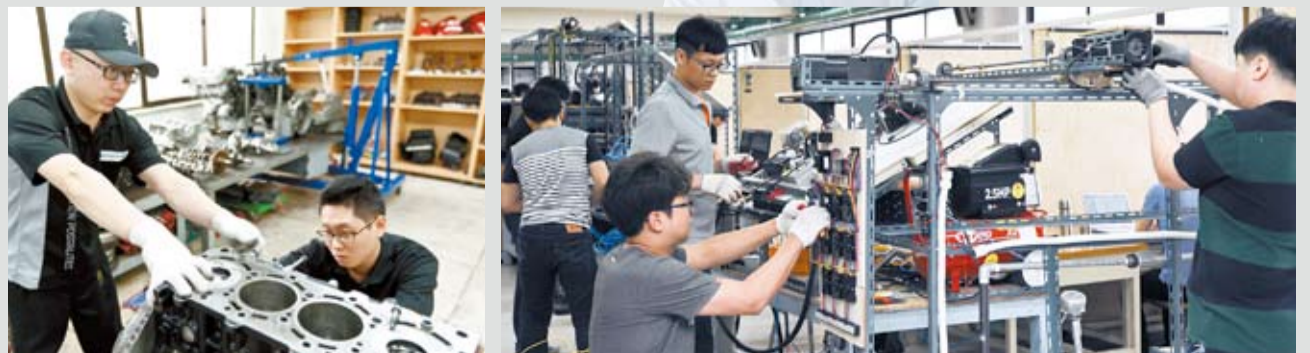


교육생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일까, 기술교육팀원들의 표정이 밝다.

교육생 모집

현대건설기술교육원 하반기 기업대학 과정 안내

- **모집 학과**
1년 과정: 플랜트배관, 플랜트 전기계장, 건설 BIM, 건설공정 관리, 건설기계정비
6개월 과정: 플랜트품질, Global HSE
- **지원 자격** 건설업계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 **접수 기간** 2015년 8월 18일까지 (현대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교육비** 전액 무료, 실습 재료 및 중식 제공, 매달 40만원의 기술장려금 지급
- **입학 상담** 02-2163-0998-9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건설기술교육원 교육생들 모습.

VIEW

생각의 좌표 **나폴레옹과 보응우옌잡, 손자병법**

뛰어난 전략가의 첫째 조건은 유연한 사고인데 이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전략가로 많은 사람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년)와 베트남의 보응우옌잡(武元甲·1911~2013) 장군을 꼽는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명언의 주인공 나폴레옹은 변방 코르시카섬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온갖 차별과 멸시를 견뎌냈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혼란 상황 속에서 외세의 침입을 막아낸 그는 독일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교향곡 3번 '영웅'을 헌정했을 정도로 국민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40대에 서유럽 전역을 정복한 나폴레옹은 프랑스 최초의 중앙은행 설립, 나폴레옹 법전 편찬, 공교육 제도 확립 같은 빛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의 닐슨 제독에게 패했고, 1812년에는 60여만 명의 대군을 러시아 원정에 보냈다가 참패했다. 귀양갔던 엘바섬에서 탈출해 1815년 영국의 웰링턴과 연합군에 대해 워털루 전투에서 격돌했으나 다시 고배를 마시고 유배지 세인트헬레나섬에서 생을 마감했다.

마이클 하트는 저서 <세계사의 사람들>에서 "나폴레옹의 인생은 극적인 성공의 연

속이었으나 말년에는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보응우옌잡은 어떨까? 그는 경제력이 30배가 넘는 프랑스 군대와 디엔비엔푸 전투(1954년)에서 싸워서 승리했다. 이어 경제력이 200배가 넘는 세계 최강국 미국 군대와 15년이 넘는 긴 전쟁에서도 승자가 됐다. 1979년 베트남 국경을 침공한 중국군 10만 명까지 격퇴했다. 그는 프랑스·미국·중국 등 거대한 골리앗을 모두 물리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장(智將)이다. 그래서 '붉은 나폴레옹'으로 불리기도 한다.

헨리 키신저는 저서 <중국 이야기(On China)>에서 "보응우옌잡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군사 전략가인 손무(孫武)가 쓴 <손자병법(孫子兵法)> 전략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함으로써 이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등학교 역사교사 출신인 보응우옌잡은 <손자병법> 등 동서고금의 전략 서적을 독학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가가 됐다. 나폴레옹은 승리할 때 힘이 비슷한 또는 약한 이웃 나라들과 싸워 이긴 반면, 보응우옌잡은 국력이 월등하게 강한 미국·프랑스·중국을 물리쳐 더 돋보인다.

보응우옌잡이 구사한 전략의 핵심은 '적(敵)이 원하는 방법, 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는 적이 전면전을 원하면 국지전으로 대처하고, 속전속결을 원하면 지구전을 하고, 정규전을 원하면 비정규전을 한다. 우리의 전략은 전쟁을 오래 끄는 것이다. 이런 지구전(持久戰)만이 물질적인 핸디캡을 극복하며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는 심리전도 폈다. 일례로 베트남으로 하여금 미군을 살해해 시신을 사이공(지금의 호찌민) 시내에 끌고다니게 하고 이를 미국 TV가 방송하도록 했다. 이 방송을 본 수많은 미국인이 전쟁에 등을 돌렸고, 반전 여론이 들끓는 바람에 미국 행정부의 전쟁 의지도 덩달아 약화됐다. <손자병법>에서 상책(上策)으로 강조하는 적의 의지를 타격하는 방식(上兵伐謀: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의 꾀를 치는 것·謀攻)을 적용한 것이다.

<손자병법>은 21세기 들어 경영 현장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자신이 읽은 4000여 권의 책 가운데 인생 최고의 책으로 <손자병법>을 꼽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젊은 시절 중증 만성간염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다. 그는 당시 상황을 "울었다. 기도했다. 책을 읽었다"로 표현한다. 손 회장은 손자병법을 읽고 또 읽은 끝에 스물일곱 살 때 가로 5자, 세로 5자, 총 25자로 이루어진 '손정의의 제품 방법'을 독자적으로 창안했다.

그는 말한다. "새 사업에 뛰어들 때, 시련을 겪을 때,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세울 때 끊임 없이 이 스물다섯 자의 제품 방법을 떠올렸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손정의는 '제품 방법'의 원리에 따라 1년 반 동안 40여 개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해 놓고 각각의 10년 치 비즈니스 플랜을 철저히 짜보는 과정을 40번이나 반복한 다음 소프트뱅크를 창업했다.

한국인은 유대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DNA를 지닌 인재로 꼽힌다. 하지만 한국인, 특히 리더들 가운데 전략 마인드를 가진 이는 드물다.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투에는 강한 한국의 인재들이 정작 전략에는 약하다"며 "가장 큰 이유는 틀에 박힌 생각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뛰어난 전략가의 첫째 조건은 유연한 사고인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치열해지는 21세기 전면 경쟁 시대에 유연한 사고와 창조적 의지로 무장한 '전략가형(型) 리더'들이 각 분야에서 더욱 많이 나왔으면 한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의달

조선일보 산업1부장



계동 산책 **커리와 툽툽 터지는 귀리밥의 환상 조화**



오름 커리(ORUM Curry)

지난해 11월 오픈한 '오름 커리'는 재동초등학교 사거리 근처에 위치해 있다. 충남정육점과 대성부동산 사이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른편 2층에 오름 커리가 보인다. 이곳에서는 정성을 담아 만든 다양한 커리를 만날 수 있다. 글=임영현 / 사진=송성훈

'오름 커리'는 큼직한 건더기가 가득한 커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고구마, 감자, 호박, 양파 등의 채소를 은근한 불에 끓여내고, 이를 끓여 간 후 강황, 커민 등을 넣어 만든다. 수프처럼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귀리를 섞은 밥과 함께 먹으면 심심하지 않다. 입안에서 툽툽 터지는 귀리의 식감이 재밌다.

커리 메뉴는 토핑에 따라 달라지는데 버섯·치즈·두부완자·새우·치킨 등 총 다섯 가지. 특히 진한 맛의 두부완자를 올린 두부완자 커리와 버터에 새우를 먹음직스럽게 구워낸 새우 커리가 인기다.

이곳 커리의 절반 정도는 직접 만든 커리 가루를 사용한다. 커리 가루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손수 가공해 넣는 것. 예를 들면 커민과 우더 대신 분쇄하지 않은 커민을 볶아 가루를 낸다. 채소를 끓여 갈아내는 작업만큼이나 시간과 정성이 들지만 품미가 더 깊어진다. 주인장 하일수씨는 그 양을 차츰 늘려 '오름 커리'만의 커리를 완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후식으로는 커리와 잘 어울리는 아이스망고라시를 추천한다. 홈메이드 요거트와 100% 망

고 과육, 그리고 이곳 창가에서 키우는 민트 잎이 들어간다. 국산 크래프트 맥주 'Hug Me'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9월에는 인도식 밀크티 사이를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라고.

다기 위주의 그릇도 판매하는데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이다. 커리와 피클을 담은 접시는 한 작가의 작품. 이를 정기적으로 교체해 다양한 식기를 제안할 계획이다.

주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31-6(가회동 151-2)
문의 02-735-1757
영업시간 오전 11시30분~오후 9시(브레이크 타임 오후 3~5시), 매주 일요일 휴무
주요 메뉴 버섯커리 7000원, 치즈커리 8000원, 두부완자커리 8500원, 새우커리 9000원, 치킨커리 9500원, 아이스망고라시 5500원(식사시 4500원)

special event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특별 이벤트**

저녁타임에 이쿠폰을 제시하시면 **맥주를 20% 할인**에 드립니다. (8월 말까지)



HOT CLIP HILLSTATE NOW!

한강·서울숲·강남 모두 누리는 탁월한 입지 '힐스테이트 금호' 9월 일반분양



'힐스테이트 금호' 조감도.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왕십리역 비트플렉스(엔터시스, 이마트, CGV 입점), 롯데마트 행당점 등이 가깝다. 또한 순천향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양대병원 등이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안전 ▶가족 중심의 특화 설계도 눈여겨볼 부분. 단지 내 잔디마당과 산책로, 벽천 등이 조성되며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주차장은 100% 지하에 마련되며 주차장 비상콜버튼, 저층부 가스배관 방범 커버 등도 적용된다. 베드민턴장과 썬큰정원, 유아·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선보인다.

분양 문의 02-3463-9780

우리 회사가 오는 9월 서울 성동구 금호4가 56-1번지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금호' 일반분양에 나선다. 금호 20구역에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금호'는 지하 3층~지상 15층 15개 동, 총 606세대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84㎡, 114㎡, 141㎡의 73세대가 일반분양된다.

'힐스테이트 금호'는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일부 세대의 경우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특히 응봉산, 서울숲, 달맞이공원, 한강공원 등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편리한 교통환경도 갖추고 있다. 성수대교, 동호대교와 지하철 3호선 옥수역·금호역, 5호선 신금호역 그리고 경의중앙선 응봉역 등을 통해 강북·강남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구분	현장명	총세대	분양 문의
서울/수도권	고덕래미안	3658	02-554-5574
	강서	2603	02-2698-7400
	태전	3146	031-731-1400
	인천갈매도6차	454	1566-4452
	남양주퇴계원	1076	031-563-8888
	백련산 4차	963	02-302-7203
지방	당진	915	1899-0058
	창원김계 4차	1665	055-282-5005
	해운대워브	2369	051-742-5116

PEOPLE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그린 웹툰은 많다. 그중에서도 웹툰 <마루의 사실>은 단연 돋보인다. 웹툰을 그린 김준 작가는 단편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애니메이터. 그녀가 그려낸 반려견과의 일상은 유난스럽지 않으면서도 참 따스하다. 글=이희정 / 그림=김준(blog.naver.com/tempsperdu)

만나고 싶었습니다 계동의 소박한 일상을 그리는 김준 작가

보드랍고 따스하게 감사는 너의 존재

계동 인근의 작은 커피숍에서 그 개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다. 보슬보슬한 노란 털에 까만 눈이 인상적인 개는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주인 곁에 몸을 낮추고 앉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갈수록 내 미미 중지도, 싫지도 않은 표정. 조심성 넘치는 이 개의 이름은 '마루'. 알고 보니 마루는 웹툰 주인공이었다. 실제 마루와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웹툰 속 마루는 레진코믹스(www.lezhin.com)를 통해 1년 2개월 동안 독자들을 만나 왔다. 무덤덤한 개 마루와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그려낸 김준 작가(필명: 의외의 사실)를 <사보신문>이 수소문했다. 실제로 만난 그녀는 웹툰 속 마루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레진코믹스 웹툰 <마루의 사실>

Q 애니메이션,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웹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대학 졸업하고 10년 정도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내 친한 친구와의 가벼운 친밀감> <도시엔 사는 사람들의 공간감> 등 네댓 편은 혼자 만들었고, 협업까지 합치면 십여 편 넘게 만들었어요.

Q 원래 전공은 국어교육과로 알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문학·국어 시간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국어교육과에 갔는데 대학교 3학년 때쯤 이게 아닌데 싶더라고요. 임용고시를 볼 자신도 없고, 공부도 안 했어요(웃음). 뭘 하면 좋을지 하다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정했어요. 주변에서도 많이 놀랐죠. 나답없이 미래도 불투명한 애니메이션을 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Q 전공자도 아닌데 갑자기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림은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친구들이 부탁하면 장난식으로 그려주곤 했어요. 그림을 그려줬다고 마음먹은 후에는 동네 미술학원을 다니기도 했고요. 그러다 한국영화화카데미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됐어요.

Q 애니메이션 작업이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은 기법에 따라 작업 방식이 달라요. 요즘은 대부분 디지털로 작업하는데 당시 저는 종이에 작업을 했어요. 1초에 8장의 프레임으로 구성되는데, 한 장 한 장 그려서 작업하다 보니 10분 정도의 작품을 만드는 데 1년 정도가 걸렸어요.

Q 한 작품을 1년 넘게 그리다 보면 도 달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근데 하다 보면 그 세밀한 작업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웃음). 힘들긴 해도 재미있으니까 오랜 시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짧은 작품에 비해 작업하는 시간이 길고, 대중들에게 자주 선보일 수 없다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Q 어떻게 웹툰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이 사실 고돼요. 지루한 시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틈틈이 블로그에 마루와의 재미난 일상을 그려서 올렸는데, 그때 같이 애니메이션 하던 친구가 웹툰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블로그에 있는 마루 그림을 그냥 올려보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가 조언해 준 대로 아마추어 리그에 웹툰을 올리다가,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정식으로 연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Q 소재는 주로 어떻게 찾으시나요.
<마루의 사실>은 1년 2개월 정도 연재가 진행됐는데, 빠듯한 일정 속에서 매주 한 회씩 업데이트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보다 보니까 보여서 그리는 것도 있고 그려야 하나까 더 관찰하기도 했어요.

나와 닮은 내 강아지, 마루

Q <마루의 사실>의 일등공신은 마루라고 할 수 있어요.
마루는 2011년 8월에 저희 집에 왔어요. 나이는 다섯 살이요. 제가 지금은 따로 나와서 사는데, 옛날에는 가족이랑 함께 살았거든요. 당시 동생이 너무 키우고 싶어해 입양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집에 오랜 시간 있다 보니 어서 제 개가 되더라고요.

Q 마루는 보통의 개들과 성격이 달라요. 그게 또 웹툰의 재미를 더하기도 하고요.
원래 좀 특이한 애인 것 같아요. 고양이 같기도 하고, 조용한 사람 같기도 하고(웃음). 친구 만나는 데 데리고 나가면 혼자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구경해요. 정말 흥미진진하게 한두 시간은 거뜬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어 다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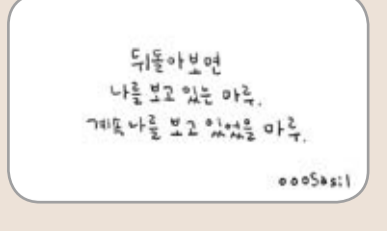
Q 마루를 위해 산책도 매일 시키신다고 들었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데리고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개가 저렇게 젖어서 어떻게 하나고 걱정도 하세요(웃음). 산책이란 게 일이 없을 때는 데리고 나가서 슬슬 돌아다니면 되는데, 바쁠 때는 산책시키기 위해 30분에서 한 시간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그래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마루에게 해 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마루는 산책을 가도 사람이나 고양이, 개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혼자 사색하는 것처럼 동네 구석구석을 정말 열심히 살펴요. 이상한 고집도 있어 꼭 들러서 확인하고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웃음).

Q 마루를 데려오기 전과 후, 작가님 삶도 많이 달라지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혼자 살면서 키우는 건 느낌이 정말 달라요. 처음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혼자 살다가 톰메이트가 생긴 느낌? 자꾸 개의 시선이 느껴지고요(웃음). 또 달라진 건 저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루와 함께 산책하거나 커피숍에서 작업하다보면 사람들이 쉽게 말을 걸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길에서 인사하는 분들도 부쩍부쩍 늘고 있어요(웃음).

계동 라이프 & 신작 웹툰 <세계문학읽기>
Q 작가님 블로그를 보면 계동 인근의 일러스트가 눈에 많이 띄어요.
우선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마루와 산



마루의 사실 by 의외의 사실



책하면서 많이 보는 풍경이다 보니 자주 그리게 되더라고요. 한 6년 전에 우연히 삼청공원 지나서 감사원 길로 목적 없이 걸었어요. 셋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중앙고등학교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본적이 없는 동네인 거예요. 그 후 집을 구하다가 그때 그 길이 생각 나서 터를 잡게 됐어요.

Q 작가님 일러스트를 보면 웹툰의 그림체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스케치하고 그 위에 그리는 걸 지루해 해서, 밀그림은 안 그리고 그냥 펜으로 그려요. 보통 카페에서 작업하니까 카페 풍경이 많고요. 아니면 그리고 싶은 장면이 있으면 사진으로 여러 장 찍은 후 나중에 그걸 보면서 당시의 느낌을 살려서 그리기도 하고요.

Q 최근에 새로운 연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세계문학읽기>는 민음사에서 제안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마루의 사실> 연재를 막 끝낸 상태라 뭘 할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연락이 왔어요. 원래도 책을 읽고 블로그에 그림과 감상을 짧게 올렸는데, 이번 웹툰은 한 발 더 들어가 문학 작품을 깊게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첫째 주 월요일에는 '작품이야기'가 셋째 주 월요일에는 '이 장면'과 '작가 이야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Q 명작을 웹툰으로 그려내는 작업이라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을 편한 마음으로 읽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한번 읽고, 장면 보려고 또 읽고, 그런데 워낙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 재미있게 작업하고 있어요.

Q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연재뿐 아니라 하반기에는 또 다른 연재를 기획 중이에요. 아마 베트남 여행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참! 조만간 <마루의 사실> 단행본도 나와요. 발행 시기 맞춰 마루가 주인공인 짧은 애니메이션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웃음).

CULTURE

여름이다. 기상청에서는 42년 만의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방법이 어디 없을까. 언제나 비교적 편안한 의자를 제공하고 땀방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영화까지 선사하는 영화관이 있다. 취향과 상황에 맞는 영화를 고르면 그뿐이다. 글=강명석 (ize) 편집장

취향따라 상황따라 골라보는 여름 개봉 영화



아이와 방학을 함께 보내야 하는 부모라면 **인사이드 아웃**

- 개봉일 7월 9일 • 감독 피트 닥터
- 관람 등급 전체 관람가
- 출연(목소리) 다이안 레인, 에이미 포엘러, 카일 맥라클란, 민디 캘링, 빌 헤이더, 케이틀린 디아스 등
- 한 줄 요약 이 영화를 보고 울지 않는다면 당신의 뇌에는 '슬픔'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토이 스토리〉 시리즈 등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의 작품들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의 애니메이션이 사실상 어른들을 위한 작품이라는 데 있다. 작품마다 등장하는 귀여운 캐릭터와 신나는 액션은 어린이들도 좋아하지만, 작품에 담긴 메시지의 주제와 전달 방식은 아이보다 어른의 취향에 가깝고, 결국 감독의 눈물을 흘리는 쪽은 어른이다. 〈인사이드 아웃〉은 이런 픽사의 역사에서도 가장 주목할 작품 중 하나다.

이미 해외에서는 만장일치의 극찬을 받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은 소녀 라일리의 뇌 속에 기쁨, 슬픔, 버럭, 까칠함, 소심의 다섯 가지 감정이 그를 위해 일한다는 설정으로 시작해 라일리가 기쁨과 슬픔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펼쳐낸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는 인간의 감정과 성장에 대한 눈물겨운 메시지가 있다. 영화가 끝난 후 부모와 아이가 서로의 감상에 대해 이야기해 봐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인사이드 아웃〉의 캐릭터 상품은 아이에게 꼭 사주도록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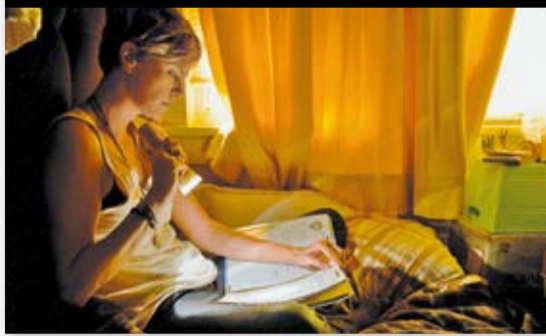


으스스한 여름을 맛보고 싶다면 **다크 플레이스**

- 개봉일 7월 16일 • 감독 질스 파켓-브레너
- 관람 등급 청소년 관람 불가
- 출연 사를리즈 테론, 니콜라스 홀트, 클레이 모레츠
- 한 줄 요약 113분 동안 계속 속삭이는 긴장감이 압권

한여름의 서늘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거나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보다 더욱 좋은 방법이 있다. 문자 그대로 답답이 돋으면서 오는 그 소름끼치는 느낌, 정서적으로 다가오는 서늘함이야말로 여름을 잊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게다가 액션 바람이 조용히 들어오는 극장에서 〈다크 플레이스〉 같은 영화를 본다면 그 서늘함은 더할 것이다.

지나해 개봉, 클라이맥스에서 관객들에게 소름끼치는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던 영화 〈나를 찾아줘〉의 원작자 길리언 플린이 쓴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다크 플레이스〉는 〈나를 찾아줘〉가 그랬던 것처럼 한 여성과 관련된 끔찍한 범죄의 이야기를 다룬다. 25년 전 끔찍한 살인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이미 지난 일처럼 다가오지만, 어느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현재의 스킬러로 바뀐다. 끔찍한 사건과 독특한 구성,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있으니 여름밤에 한 번 으스스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모여라, 단체관람이다! **암살**

- 개봉일 7월 22일 • 감독 최동훈
- 관람 등급 15세 관람가
- 출연 이정재, 전지현, 하정우
- 한 줄 요약 올 여름 한국 영화계 최강의 카드

영화 〈도둑들〉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최동훈 감독이 〈도둑들〉의 이정재·전지현과 함께 다시 한번 〈암살〉을 만들었다. 이번 영화에는 〈도둑들〉의 김윤석과 김혜수 대신 하정우가 들어간다. 지금 현재 한국 영화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독과 배우의 조합인 것이다. 그러나 영화의 규모 역시 클 수밖에. 193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일본의 조선주둔군 사령관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다룬 이야기에는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액션이 들어가야 마련이다. 물론 〈암살〉보다 큰 규모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있다.

하지만 〈도둑들〉이 증명했듯 한국 블록버스터들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대중에게 보다 쉽게 다가서고, 무엇보다 더 넓은 연령층을 관객으로 삼는다. 부모님도 친구들이든 회사 동료든 여러 사람이 같이 보기에 가장 부담 없는 작품일 수 있다는 의미.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일단 〈암살〉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썸타는 사람과 함께 보면 실패하지 않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 개봉일 7월 30일 • 감독 크리스토퍼 맥쿼리
- 출연 톰 크루즈, 제레미 레너, 사이먼 페그, 알렉 볼드윈, 레베카 퍼거슨
- 한 줄 요약 톰 크루즈가 또다시 생고생하며 액션 연기를 소화한다. 더 설명이 필요한가?

아직 관계가 명확치 않은, 그러나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것은 거의 필수 코스인 동시에 고민되는 일이기도 하다. 기껏 고른 영화가 상대방에게 재미없는 작품이면 어떻게 하지? 영화가 끝난 후 분위기는 싸해질 것이고, 서로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모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는 가능하면 취향 타지 않는 영화, 어지간한 사람들은 대부분 화제작으로 알고 있는 영화, 한마디로 블록버스터를 예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그중에서도 톰 크루즈가 다섯 번째 출연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새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은 가장 안전도가 높은 선택이다. 톰 크루즈는 한국인이 대부분 아는 배우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그의 출연작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다. 게다가 블록버스터 중에는 볼거리에 비해 스토리가 부실한 경우도 많지만, 〈미션 임파서블〉은 스토리가 늘 일품 수준 이상이었다. 물론 상대방이 톰 크루즈나 〈미션 임파서블〉을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분명한 취향을 가진 상대방이라면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골라 추천하지 않을까.



이번 여름 또 하나의 선택제19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영화관에서 가끔 더위를 잊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부천 각지에서 열리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BiFan)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여름에 영화제 이름만큼 '판타스틱'한 영화들을 상영해 온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기존 영화제들과 달리 판타지, SF, 호러 등 비일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영화들을 수없이 발굴해 영화 팬들의 또 다른 축제로 자리 잡았다. 1997년 제1회 때 공포영화의 고전인 〈킹덤〉을 상영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작품을 소개했고, 외신으로부터 접할 수

있던 해외 감독과 배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상영작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부천체육관, 부천시청, 한국만화박물관, CGV 소풍, CGV 부천, 롯데시네마 부천 등에서 올해에도 많은 작품이 상영될 예정인데, 국내에서 이미 개봉해 화제를 모은 김혜수, 김고은 주연의 〈차이나타운〉이 '부천 초이스'로 재상영되는 것을 비롯해 〈불한당들〉과 〈멜리스〉 같은 국내 작품들과 〈스프링〉 〈데드맨 인 페르노〉 등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해외 작품들을 마음껏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은 개막작으로 선정

된 〈문 위커스〉. 연출을 맡은 앙투안 바르두-자케트는 이 작품이 데뷔작이지만,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룬을 연기한 것으로 유명한 루퍼트 그린트, 수많은 작품에 출연한 관록의 배우 론 펠먼 등의 출연 라인업은 관심과 흥미를 끌고, 무엇보다 미국의 달 착륙에 관한 '음모론'을 소재로 기발한 상상력을 풀어간다는 점에서 봐야 할

이유가 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장면을 조작하기 위해 1960년대 말의 CIA 요원이 당시 최고의 영화 감독이던 스탠리 큐브릭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호기심을 이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영화의 의무이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우리의 상상을 일깨우는 영화제인만큼 이만큼 어울리는 작품은 없을 듯하다. 더운 여름, 부천을 둘러싼 현실과 상상의 경계 속에 발을 들여보자.



ART

콜롬비아 출신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유쾌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보테로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FERNANDO BOTERO

페르난도 보테로展
(1932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5.7.11~10.4 | 02-580-1300



- 1 발레 바의 무용수_2001년, 캔버스에 유화, 164x116cm
- 2 거리_2000년, 캔버스에 유화, 204x177cm
- 3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를 따라서_1998년, 캔버스에 유화, 204x177cm
- 4 영부인_1989년, 캔버스에 유화, 203x165cm
- 5 파란 커피 주전자에 있는 정물_2002년, 캔버스에 유화, 122.5x102.5cm

고전의 엄숙함을 패러디하는 풍만함의 미학

동글동글한 형태의 양감을 강조한 인물화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가,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2009년 첫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그의 작품들이 더욱 흥미로운 구성으로 다시금 한국을 찾았다. 인체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보테로의 작품세계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총 90여 점에 달하는 보테로의 회화를 선보인다. 그는 화려하고 풍부한 색채와 비정상적인 형태, 거대한 넓적다리와 터질 듯 부푼 엉덩이를 인물을 통해 고전의 엄숙함과 진지함을 패러디한다. 어렵고 난해한 미술이 아닌 쉽고 유쾌한 이미지로 관객에게 웃음을 안기려는 시도다.

다빈치, 루벤스, 반 고흐, 벨라스케스 등 미술사 속 거장들의 작품을 차용하고, 그들과 같은 주제를 작품에 녹여내면서도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시선을 끄는 보테로. 라틴아메

리카 특유의 색감과 조형미가 돋보이는 작품들은 작가 자신이 어린 시절 동경했던 요소들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다.

보테로가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1961년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이 그의 1959년 작 <12세의 모나리자>를 구입하면서부터다. 익히 알려졌듯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풍뎡하게 그린 작품으로, 과장된 인체 비례를 통해 제도화된 규범과 기존의 미의식을 유쾌하게 풍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의 작품을 패러디한 <발레 바의 무용수>(2001)도 흥미롭다. 그림 속 발레리나는 거침없이 풍만하다.

유년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명화가의 화집을 보며 미술가의 꿈을 이어갔다는 보테로. 평생을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하며 예술철학을 쌓아올린 그 특유의 유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를 놓치지 말자.

